

<환 영> 살롱! 서로 인사합니다. 지난 주, 서울에 올 해 첫 눈이 내렸습니다. 첫 눈의 추억을 함께 나눠봅시다.

<찬 양> ㄱ 주님만이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말 씀> 살전 5 : 16~18

1.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와 그 도시의 종교에 대해 아는 대로 발표해 봅시다.
2.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와서 몇 일 동안 무엇을 전했습니까?(행17:1~3)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행17:4~9)
3. 고린도에 온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살전1:2~7)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성장을 보면서 복음의 일하심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4.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하였습니까?(살전3:2~4) 이 일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표현을 살펴봅시다.(3:7~9) 당신은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봅시다.
5. 살전5:18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봅시다. ‘범사’라는 개념의 범위에 대해 살펴봅시다. 또한 ‘감사하다’의 원어는 초기 교회의 성찬식에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이것을 볼 때, 성도의 진정한 감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뜻을 풀어서 발표해봅시다.
6.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살전5:18) 이 명령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은 답답하고, 힘들 때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의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며 서로 나누어봅시다.

<기 도>

1. 개인/가정: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의지임을 신뢰하며 살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되도록
2. 교회: 삼일교회의 강단사역과 담임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
2013년의 마무리와 2014년의 준비를 위해
새내기캠프, 예람제, 전도 등으로 모인 새가족들의 양육과 정착을 위해
학교와 훈련, 주일학교 등의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이 주인되시도록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 모든 봉사의 일들을 위해
3. 나라: 한국 교회에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되도록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 같은 약자들을 잘 돕고 세우는 나라 되도록

<설교요약>

1.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힘의 논리, 성공지향주의, 이단적 사실이 가득했던 도시이다

성경의 감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역사적, 종교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로마가 제국주의를 팽창해 가면서 데살로니가는 로마에게 스스로 편입되어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다음으로 가장 로마다운 도시로서 로마의 힘의 논리에 순응하는 도시적 성격을 가졌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를 받치는 두 개의 종교가 도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교는 디오니소스입니다. 이 종교는 남성의 생식기를 심볼로 삼아 번영, 힘, 성장, 긍정, 번성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디오니소스 종교적 색채 때문에 성공지향적 성향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종교적 한 축은 카비루스입니다. 카비루스는 이 지역을 다스리던 장군이었는데 암살당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동생들이 형의 급작스러운 죽음의 애도는 넘어 신격화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카비루스가 부활하여 구원하여 올 것이라는 신학의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2. 바울은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당함을 듣고 감사 드린다

바울은 이런 도시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정신과 가치에 배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고위층이 복음에 순종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행17:4) 그리고 반대그룹도 형성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량배를 동원하여 야손의 집에 머물던 바울을 내쫓았습니다. 바울은 베뢰아로 도망치고, 베뢰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온 바울은 이제 막 태동한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눌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한참 후에 돌아온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고위층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적 결단을 하여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살전1:2~6) 바울이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경고하였음에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각오를 하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였습니다.(3:1~4)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감사를 보답할 길이 없다고 고백합니다.(3:7~9)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성도들의 삶을 들으면서 바울에게 넘치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3.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감사가 완성되는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걸고 완성시키신다

이런 배경에서 감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범사는 헬라어 ‘파스’로 영어 성경에서는 ‘all’ 혹은 ‘everything’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한글과 영어 성경은 원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물질적인 것을 뛰어 넘는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개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온 모든 시간, 사연, 일들을 돌아보니 어느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은 것이 없어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감사하다”의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로서 a.d. 200년경까지 오직 성찬에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이는 진정한 감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감사해야 하는 가장 깊은 근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은 의지를 의미합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 우리를 감사하는 자리까지 끌어 완성시키겠다는 하나님 쪽에서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답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걸고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감사주일을 맞아 이 약속이 우리의 온 생애를 끌고 가는 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조영성
made by musicday

나 약해있을 때 에 도 주 님 은 함 께 게 시 고
나 소망 잃을 때 에 도 주 님 은 내 게 오 시 네
나 시험 당 할 때 에 도 주 님 이 지 켜 주 시 고
나 절망 당 할 때 에 도 주 님 이 위 로 하 시 네
주 님 만 이 내 영 이 시 머
오 주 님 만 이 날 도 우 시 네
오 나 의 주 님 내 아 버 지 여
오 나 의 주 님 내 사 랑 이 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원제 : 주 나의 모든 것) 예수전도단 역
Dennis Jernigan

1.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변화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
2. 삼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
주 안에 있는 보물 을 나 는 포 기 할 수 없 네 주 나의 모든 것
선과 진리를 세우 고 나의 번민을 채우 네
예 수 어 린 양 존 귀 한 이 름 - 름

Copyright (C) 1991 Shepherd's Heart Music. Adm.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